

# 암울한 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 고려인 작가 김준의 시와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김필영(강남대학교)

## 1. 머리말

김준(1900-1979)은 1931년 원동 해삼시 원동국립대학 노동학원을 졸업한 후 <<선봉>> 신문사에서 일하였다. 1933년 모스크바대학교 철학부에 입학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이듬해에 중퇴한 뒤 1936년까지 해삼시 뽀씨예트 구역 <<레닌의 길>>로 신문사에서 근무하였다. 1962년에 조직된 카자흐스탄작가동맹 크즐오르다지부에 개설된 고려인작가분과의 분과위원장에 선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0년에 정식으로 설립된 카자흐스탄작가동맹 고려인작가 분과의 위원장 겸 끈술탄트로 선임되었다. 1928년에 <한까의 가을>이란 기행문을 <<선봉>>에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작품집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의 최초의 장편소설 <<십오만 원 사건>>(1964)과 최초의 개인 시집<<그대와 말하노라>>(1977), 그리고 유고시집 <<숨>>(1985)이 있다.

<<레닌기치>> 신문과 공동 작품집에 게재되었던 작품으로 다음의 시와 소설이 있다.

시작품으로 <<조선시집>>(1958)에 실린 <열길 솟은 강>, <내 고향 석천동>, <로씨야 병정>; <<레닌기치>>에 실린 <오십구년의 목소리>(1959), <태평양 별 네 개를 노래하노라>(1960), <레닌과 함께>(1961), <나의 정 깊은 강>(1961), <마흔 아홉>(1962), <나의 축배>(1965), <오월의 노래>(1968), <내야 있던 없던>(1968), <신년송>(1969), <쑬베트의 병사>(1969), <가슴 속의 오월>(1969), <오월의 평가>(1970), <밟지 않은 정신>(1970), <알리아>(1970), <샘물의 탄생>(1970), <어머니>(1971), <땅의 향기>(1972), <시를 내 써 보려 했다>(1973), <서정시>(1973), <지다나무 꽃이 핀다>(1974), <빼트리 세워>(1979);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1971)에 실린 <내 고향 땅에서>; <<씨르 다리야의 곡조>>(1975)에 수록된 두 편의 제목 없는 시가 있다.

소설작품으로 <해당화>(1958), <지홍련>(1960), <심상건과 마까로브 일가>(1963), <주옥천>(1966), <쌍기미>(1968); 공동작품집 <<시월의 해빛>(1971)에 실린 단편소설 <나그네>; <밟지 않은 오솔길>(1971)이 있다.<sup>1</sup>

1970년 이전에 발표된 김준의 대부분의 시는 소련공산당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

<sup>1</sup> 김준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였음.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용인: 강남대출판부.

와 관계된 목적시이거나 행사시이고, 1970년 이후에 발표된 시는 소련의 민족간 친선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 역시 대부분이 원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로 독립군의 활동이나 지주계급을 타파한 사회주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작가 김준의 시와 소설 작품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살펴보고 강제이주에 따른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고려인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 2. 암울한 시대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소련 원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사람들이다. 소련 당국의 결정에 의해 고려인들은 일본의 앞잡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정들었던 거주지 원동을 떠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주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공산당에서 마련한 이주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주지에 도착한 고려인들은 정착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가 이주 초기에 이들 이주민 고려인들은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역을 떠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고려인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으로 치부되어 소련에서 조국전쟁이라 부른 세계 제1차 대전 시에도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았고 기껏해야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노동전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집단농장을 조직하여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다수의 소련 노력영웅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마침내 당국의 인정을 받아 1950년대 초반이 되어 강제 이주 시 압수당한 공민증을 다시 발급받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암울한 민족적 현실에서 소련 공민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고려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낸 근면한 민족성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자 제20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폭로하는가 하면 스탈린에 의해 희생되거나 탄압을 받은 자들을 복권시키는 조치가 마련된다. 고려인들에게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게 되고 떠나온 원동의 기억이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하거나 소비에트 주권의 건설을 위해 헌신한 고려인 영웅들의 행적이 문학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의 최초의 장편소설이기도 한 김준의 <<십오만원 사건>>(1964)에 나오는 최봉설, 김준의 서사시 <땅의 향기>(1970)의 김수라,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1965-1968년까지 <<레닌기치>> 신문에 연재)의 홍범도 장군 같은 주인공 역시 고려인 사회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영웅들이다. 이 작품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으로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고려인들이 존경하는 인

물들이다. 소설 <<십오만 원>> 사건을 중심으로 김준의 시와 소설에 나타난 만주 간도와 원동 해삼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웅들의 활동상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설 <<십오만 원 사건>>은 조국의 해방을 위해 1919년 간도 일본은행의 돈을 탈취한 사건에 참여했던 최봉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준이 소설화한 작품이다.(김준 1964: 5)<sup>2</sup> 이 작품은 당시에 소문이 널리 퍼지고 고려인 사회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 온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소설화한 것인데, 김준이 이 작품을 쓰기 전에, 이 사건의 주모자 가운데 생존자인 최봉설이 사건의 인물과 전말을 알려주고 활동 지역을 그려 주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5쪽)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의 진실성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알 수 있다.

<<십오만 원 사건>>은 1914년 17세 된 최봉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열서를 쓰고 철혈광복단에 가입하고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간민교육회 주최로 열린 운동회에서 패기에 찬 청년들을 본 일본관원이 운동회에 참가한 세 중학교를 폐쇄해 버리고 교원들을 체포하자 주요 인사들을 사방으로 피신한다. 학교가 문을 닫자 철혈광복단원들은 심산 벽곡 고려인<sup>3</sup> 마을인 간도 라자거우에 사관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비밀리에 사관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했으나 재정난으로 잠정적으로 문을 닫는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조선 민족주의로 표방되나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간도 일대 조선 사람들에게도 사회주의 사상이 도래하게 된다. 러시아로 돈벌이를 갔던 립국정이 고생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러시아군대가 니콜라이 황제를 죽였다는 등 여러 가지 보고 들은 이야기와 고려인 여성 혁명가 김수라를 만나서 조선에도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가 생겨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다왈씨’(동무)라고 부르더라 이야기를 한다. 조선에서 3.1 만세사건이 일어나고 일본 순사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를 부르는 무수한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소문이 간도에 퍼졌다. 철혈광복단 비밀회의에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 시위행렬의 앞장에 설 것을 제안하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맞본 국정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3월 12일 용정의 고려인들이 시위 행렬에 참여 하여 많은 희생자를 낸다. 결국 이들은 총을 구하여 일제에 대항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 용정 일본은행을 털기로 하는데 이 돈으로 해삼으로 가 조선인이 경영하는 객점에 드나드는 백파군 장교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는 무기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일본 은행을 털기 위해 은행에 일하는 고려인 직원 전기설을 찾아가 정보를 얻고 협조를 구한다. 이때 국정의 친구 숙경은 간호부 모집하여 앞으로 독립군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드디어 날이 되어 길림-회령철도 건설비용으로 들여오는 자금 30만원을 운반하던 마차를

<sup>2</sup> 김준의 <<십오만 원 사건>>에서 인용한 것은 쪽 수만 표기.

<sup>3</sup> 인용문을 제외하고는 ‘조선’은 ‘고려’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습격하여 절반인 15만원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지만 그들은 절반을 놓친 것에 대해 분개한다. 얼마가 지나 왜놈들의 눈을 피해 탈취한 돈을 가지고 해삼 금각만에 도착하여 엄인섭의 도움으로 총을 살 기회가 마련되어 기뻐한다. 간도에서 간호부를 지원한 처녀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무릅쓰고 해삼으로 가던 중 김옥금이 세상을 떠나자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엄인섭의 배반과 백성필으로 기만으로 총을 인도 받을 날 저녁에 일본헌병대의 기습으로 봉설을 제외한 한상호, 윤준희, 림국정이 체포되고 돈마저 빼앗기고 만다. 총에 맞아 상처를 입은 봉설은 리혜인이라는 의사가 유숙하고 있는 영순의 집에 숨어서 치료를 받는다. 간호부로 지원한 처녀들을 인솔하여 온 숙경이 자기의 약혼자 림국정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다. 기막힌 일을 당한 숙경과 함께 간호부들을 인솔해 왔던 세 청년은 추풍 당어재골에 가서 홍범도를 만나 앞 일을 상의하기로 하고 열한 명의 처녀는 다시 간도로 돌아가기로 한다. 홍범도는 자신을 찾아온 럼길룡과 김성일이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수청에 있는 친구인 림이완한테 보내 피신시키고, 박응세는 자신이 맡았다. 십오만원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이 함경북도 청진 감옥에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애국 열사 구원금’ 모집 운동이 전개되었고, 간호부로 지원했던 냇이 까맣게 그늘고 입술이 말라 터진 열한 명의 처녀들이 간도 일대 농촌을 돌아다니며 모금을 하여 변호사를 고빙하고 구금자들에게 음식을 마련한다. 통보를 받고 급히 신한촌으로 간 박응세, 김성일, 럼길룡에게 방기창 외 모모한 분들이 권총, 수류탄, 일화 40원을 마련해 주며 감옥에 갇힌 이들을 빼내라고 한다. 청진에 도착하여 조선인 순사 김씨를 찾아가 그들이 감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여 일을 도모하는데 구금된 결사대원들이 서울로 이송되고 만다. 다시 신한촌으로 돌아온 이들은 봉설의 숙소를 찾는다. 동무들의 소식을 접한 봉설이 무장할 희망을 놓친 것을 분해 하자 길룡이 러시아 빨찌산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재판에서 셋은 사형 언도를 받았고 곧 교수형에 처해졌다.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봉설을 길룡과 응세가 리혜인의 도움을 받아 기차편으로 수청으로 데려간다. 장례 후 룡정으로 돌아간 숙경은 마음을 정리하고 간호부를 지원했던 처녀들을 만나 의지를 확인하고 의연금을 더 모아서 러시아로 다시 가기로 굳게 약속한다. 1920년 9월 이만시 고려인 소학교에서 홍범도의 주재로 조선독립군회의가 열렸고 봉설은 러시아에서 왜놈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대한독립전쟁이라고 한다. 독립군 사관학교를 세우기로 한 양허재에 주민회의가 열리고 독립군 사관생들을 집집에 배치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홍범도는 레닌을 방문하여 조선과 중령에서 조선 독립 군대 군인 수천 명이 이만 등지에 모였다는 것을 레닌에게 알리고 그 희망과 목적을 말하여 쏘베트 로씨야는 유독 조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식민지 민족과 예속 민족들의 해방과 독립의 조국으로 반드시 되리라는 레닌의 해설을 직접 듣게 된다. 러시아 빨찌산과 연대하여 이만 방어선으로 나가며 봉설은 공산당원 박홍이 늘 하던 로씨야에서 일본 군대와 백과와 싸우는 것이 곧 대한 독립 전쟁이며 러시아 군대가 함께 나

서야 일본놈들을 조국에서 몰아 낼 수 있다는 말을 기억했다.

## 2.1. 항일이념과 민족주의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10년대 초반이며 만주 간도와 제정러시아 해삼에 사는 고려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이래,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고려인 주인공들의 영웅적인 행동의 묘사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전체 고려인들의 집단적 민족주의로 나타난다.

(.....) 학생 제군들이여!... 나라 없는 백성은 살아 다닐 곳이 없고 죽어 묻힐 곳이 없습니다.

깜짝도 하지 않는 교장 선생의 두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 내렸다. 학생들도 다 눈굽에 눈물이 어리었다. 모두가 금수 강산과 왜적을 마음으로 봤다. 개학 날이라 해서 특히 많이 모여 온 이 마을 주민 남녀 노소도 거의나 다 울었다. 로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목놓아 울기까지 하였다.

체육 선생이 또 구령을 주었다: “시작!”.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속히 광복하세...

이 국가를 부르면서 그들은 먼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실로 하느님이 굽어 살피는 듯 해서 가슴들이 더욱 조이였다.”

국가가 끝나자 교장은 또 학생들을 향하여:

- 학생 제군들이여! 정신과 근육을 무쇠 같이 만드시오. (14-15쪽)

위의 장면은 1914년 8월 15일 추기 창동학교 개학식 광경이다. “정신과 근육을 무쇠 같이 만들란 말은 삼천리 강산과 이천만 동포를 잊지 말고 체육 운동으로 몸을 날쌔고 튼튼케 하라는 것”(15쪽) 인데 일제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학부형들은 나라가 없는 현실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한 재목을 키우게 될 학교 발전을 위해 농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송아지마저도 아끼지 않고 기부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식민지 하의 민족주의란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청년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 내 오늘 정작 와 본즉 학교 집이 대단 비좁사오니 우리 또 돈을 모아 학교집을 늘구지는 것이 옳시다. 나는 쇠지를 내놓겠습니다. 나라를 찾을 청년들을 공

부시키는데 쇠지를 어지 애끼오리까.”(15-16쪽)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1919년 3월 12일 용정에 거주하던 고고려인들이 만세시위 행렬에 참여하지만 무지막지한 일경의 발사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결국 이들은 만세시위 같은 평화적 시위로는 조국의 독립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닫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 용정 일본은행을 털기로 한다. 이것이 바로 ‘십오만 원 사건’의 발단이다. 봉설과 그의 동무들은 은행을 털기 위해 총이 필요하니 부모들에게 소를 팔아달라고 하였고 결국 부모들 역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조국을 되찾기 위한 일은 생계보다도 더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려인들이었기에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것이 고려인들의 민족주의의 또 다른 면이다.

- 여보, 문약이, 우리 하려는 게 옳은 것 같잖소 - 한 상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 어찌는 게?

- 천명으로 요행 살아난 아이들께 달매 쇠지를 팔아 돈을 꾸려 줘 또 사지에 내놓는 것 말이오.

(.....)

- 그러길래 인제는 쇠지도 애끼지 말고 자식이 죽는 것도 돌보지 말고 그 애들을 내놔야 한단 말이요?

- 쇠 없으면 쇠 대신으로 짐을 지면 되구 자식이 죽으면 무가내구. 다른 사람들은 벌써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소. 그러니 우리도 큰 맘을 먹어야 한단 말이우.

- 그러나 말이 수월하지, 정작 그것들이 죽어 보오. 차라리 제 죽는니만 못 할 것이오.

- 그러길래 말이오 이 번에 죽은 그 애들의 부모네 생각이 어떻겠소? 피를 토하고 죽기까지 했지. 그것만 생각해도 아이들이 살아 난 우리 부모네는 그저 있어서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란 말이우. 원썩을 갚도록 우리는 도와 줘야 한단 말이우.

- 그러게 나두 상호가 쇠지를 팔아 내라구 하니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선뜻 대답했소 - 하면 상호의 아버지는 상투 밑을 저도 모르게 긁적거렸다.. 아들의 장래도 위험하다고 생각되었고 보내 같이 여기던 송아지도 아까웠던 것이다.

이것은 고려인들이면 누구나 마음 속에 간직한 애국심이며, 이는 국운이 위태로우면 위태로울수록 강해지는 법이다. 위태로운 조국의 앞날에 송아지가 아까울 리 없고 자식이 목숨조차 망설이지 않는 고려인들의 민족주의는 김준의 시 <나는

조선사람이다>에 나타나는 변하지 않는 민족의 진리인 것이다.

나는 로씨야 원동  
이만강변 조선사람이다.  
백두산 신령이 먹이지 못해  
멀리 강건너로 쫓아낸  
할아버지의 손자로다.

로씨야의 “마마”보다도  
카자흐의 “아빠”보다도  
그루시야의 “나나”보다도  
조선의 “어머니”란 말이  
내 정신엔 뿌리 더 깊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다음에 인용하는, 용정에 있는 일본은행으로 수송하던 철로 공사 자금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에 수감된 국정과 그의 동지들의 식사를 수발하는 국정의 어머니와 부인 숙경이 남산에 올라 감옥을 바라보면서 무성하게 자란 사꾸라 나무를 보면서 하는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 - 이 사꾸라 나무는 일본 소산이요. 일본 국화인데 저 놈들이 일본을 정신을 조선 사람들에겐 내놓고 이 나무를 옮겨다가 조선 땅에 심었다.

- 그러나 어머니, 일본 사꾸라 꽃 빛이 조선 국화인 무궁화 빛을 가리우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꾸라가 일본에서는 오래 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조선에서는 오래 피지 못 할 것입니다...

- 그렇다 -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묘한 말에 감복했다. (281쪽)

아무리 일제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이 심하고 강할지라도 고려인들의 마음 속에 각인된 “일본 사꾸라 꽃 빛이 조선 국화인 무궁화 빛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라는 조국에 대한 신념은 바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민족주의인 것이다. 십오만 원을 탈취한 혐의로 국정과 그의 동무들이 사형을 언도 받고 교수형을 당한다. 국정의 어머니 베베, 숙경, 간도 대표들, 서울 시민들이 줄을 선 장례행렬에서도 ‘무궁화 꽃 빛’에 다를 바 없는 민족의 표상인 ‘백의’를 내세워 ‘원수 일본’을 저주하고 있다. 국정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아픈 마음 대신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을 영광스럽다고 표현한 고려인 여인의 기상, 이것이 식민지 하의 고려인들의 민족주의의 한 단면이다.

조선의 빛인 흰 옷을 누구나 다 입고 나선 이 장례식 행렬은 조선의 아들 셋을 조상하는 사람들의 상복 같다. 엄숙하게도 말 없는 이 백의인들의 행렬은 움직일 수록 붙어 간다. 혹은 넓어도 지고 혹은 좁아도 지며 흐르는 흰 옷 무리 속에서 한 가지 말이 소사 오르곤 한다. “이 조선, 저 원썩”. (291쪽) 장례식에서 국정의 어머니는 “대한 동포들이여! 나라를 위하여 태어난 내 아들이 나라 일에 몸 바친 것이 내게는 영광이올시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광을 느끼는 부모가 되시기를 저는 바라나이다.”(292쪽)

## 2.2. 할일투쟁과 사회주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고려인들에게 민족주의로 표방되었으나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간도 일대 고려인들에게도 사회주의 사상이 도래하게 된다. 고려인 사회에도 “무지 막지한 불량배들이 떠들고 일어나서 로씨야가 망했다는 것, 부귀한 자의 로씨야는 망하고 빈천한 자의 로씨야가 생겼다”(64쪽) 는 소문이 향간에 떠돌았다. ‘무지 막지한 불량배’란 바로 레닌의 구호를 따르는, 제정러시아 니콜라이 황제를 대표하는 백과군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한 적과군을 의미하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관학교가 임시로 문을 닫자 러시아로 돈벌이를 갔던 국정이 소문대로 돈벌이가 되지 않자 고생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온 국정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러시아군대가 제정러시아의 니콜라니 황제를 죽였다는 등 여러 가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무산계급 혁명을 소개한다.

눈이 새까맣고 나이 한 이십 살 쯤이 되어 보이는 조선 여자가 와서 조선 노동자들과 중국 노동자들 중에서 사람들을 골라 내어 나무밭 속에 모여 놓고 연설을 하더라. 말이야. 처음에는 조선 말을 하고 다음에는 중국 말로 하는데 중어도 관연 잘 하더라. 무에라고 하는가 하니 지금 로씨야에 네닌이란 큰 선생이 나서서... (.....) 로씨야를 노동자, 농민의 나라로 만들고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넘겨 주고 토지는 농민에게 나눠 주기로 작정이라고. 이것을 브롤레따리 레볼류치라고 하거던. 이것이 조선 말로는 무산 계급 혁명이야! (.....) 그 여자의 성명이 무엔가 물어보니 김 수라노라고 하더라.(67-68쪽)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눠 주기로 작정” 한다는 말의 의미는 조국을 빼앗긴 민족에게는 더욱 의미 심장할 수밖에 없다. 간도나 해삼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소작인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봉설의 아버지는 토지를 거저 나눠 준다는 말을 듣고는 사회주의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 국정은 김수라에게서 들은 사회주의의 공산사상과 평등사상을 소개한다.

그런 연설을 한 후부터는 김 수라가 우리와 자주 만나서 조선에도 노동자 농민



국가가 생겨 나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다왈씨라고 부르더라. 다왈씨란 것이 무에냐고 우리가 물으니 “동미”란 말이라구, 네닌의 사상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나 자라니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서로 다왈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 수라가 나를 다왈씨 국정이라고 부를 때면 이 말에 어머니의 애정보다도 더 따뜻한 인정이 들어 있는 것을 나는 감촉하였다.”(68-69쪽)

소설에 등장하는 김수라란 실존 인물 김알렉산드라의 한글 이름으로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1917년 러시아사회민주당 당원이 되어 하바롭스크시 당서기를 거쳐 원동소비에트 정부의 외무위원직을 맡았던 여성 혁명가이다. 1918년에 설립된 한인 사회당의 중앙위원으로 항일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다. 연해주에 상륙한 일본군 등 러시아 영토에 간섭하던 외국군의 지원에 힘입은 백파군이 고려인 적위대를 포함한 혁명세력과의 시가전에서 승리하여 하바롭스크를 탈환하자 1918년 9월10일 마지막까지 남았던 소비에트 간부들은 기선에 올라 아무르강 상류를 향해 탈출을 감행하지만 백파군에게 나포된다. 혁명을 포기하면 살려준다는 백파군의 갖은 협박과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혁명가적 신조를 죽음으로서 지킨다. 김수라의 이러한 혁명가적 기상은 김준의 서사시 <땅의 향기>에서 백파군과의 대화에서 다시 부각된다.

2

하바롭스크...

- 넌 김수라인가?

- 그럼.

- 넌 조꼬만 조선여자인데

볼세위크됐나?

공산주의 떡을 먹으려나?

- 그럼... 래일은

백파들이 남겨놓은

유순한 청춘과부들도

홀로 빈방에서 눈물에 섞어

공산주의 떡을 먹을걸 -

공산주의란 지구의 새 이름이니까

- 잡소리 그만 두구

어서 자복하라구.

철모르는 조선여자로서

강도 볼세위크들의

홀림에 바졌노라구

자복하라구  
 그러면 목숨은 살지...  
 내 철모르는 조선녀자인지,  
 누가 강도들인지 -  
 그건 래일이 말해줄거구...  
 - 너의 얼굴이 귀엽다.  
 어서 자복하라구!  
 그러면 그 얼굴이 살지...  
 사는 얼굴에 온르는  
 까마귀의 울음도 있고  
 눈물 없는 죽음에  
 매의 날음 있네라.  
 나 하나 없다구 해서  
 동무란말 없겠나.  
 우리 동무들이 이긴다.  
 우린 칼자루를 쥐었던다.<sup>4</sup>

김수라는 원동 빨찌산 영웅 홍범도 장군과 더불어 고려인 사회가 기억하고 존경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김준이 간도에서 일본은행의 돈을 탈취한 주인공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십오만 원 사건>>에서 고려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홍범도나 김수라 같은 인물을 서사구조에 삽입하여 이들의 개인적인 영웅적 행동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소개하거나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3.1 만세사건이 일어나고 일본 순사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를 부르는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소문이 간도에 퍼졌다. 철혈광복단 비밀회의에서 결사대를 조직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만세 시위행렬에 앞장설 것을 제안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맞본 국정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단순한 반일감정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무장을 하고 항일투쟁을 해야 한다고 ‘다왈씨’(동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런 발언은 고려인들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와 연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결국 철혈광복단 위주의 소극적 항일투쟁이 빨찌산 중심의 무장 항일투쟁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 다왈씨! - 하는, 부지 불식 간에 폭발된, 이미 들어 보지 못한 이 우렁찬 말과 류다른 시벨리가 회중을 놀래웠다. - 맨 주먹만 든 사람들이 원쑤의 총칼에 맞아 무단히 죽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잡을 것이 아니라 총을 잡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부릅시다!(74쪽)

<sup>4</sup> 김준(1977), <땅의 향기>,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타: 사수식출판사, 78-90쪽.

은행으로 수송되는 자금의 일부인 15만 원을 탈취하여 해삼으로 간 국정 일행이 현지 고려인 협력자의 배반으로, 총을 맞고도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봉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군에 체포되어 수감되고 만다. 남아 있던 이들의 동지 철혈광복단원인 응세에게 홍범도는 무장 항일 투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정러시아를 대표하는 백과군에 대항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적과군인 러시아 빨찌산과 손을 잡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 인젠 우리가 무장하고 독립할 길이 하나뿐이다. 로씨야 빠르찌산들과 손을 잡아야 해.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원동에 기어 든 일본 군대부터 몰아 내야 해. 다음에는 또 러씨야 빠르찌산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서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꼭 될 거야. 오늘은 이것이 대한 독립의 길이야. 이것을 립 이완은 벌써 나와 말했어.

- 로씨야 빠르찌산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 하고 응세는 큰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 했다.

- 우리와 같은 로씨야 의병들이야. 제 땅을 잃지 말자구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렇길래 우리 대한독립군들을 꼭 알아 (\*)<sup>5</sup> 거야! 인젠 우리 이렇게 하자: 래일로 너도 립이완네 집으로 가거라. 거기가 셋이 있다가 봉설이가 달라나거덜랑 넷이 곧장이만으로 가거라. 거기는 로씨야 원동 인민군도 있어. 거기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나는 이 걸음으로 중령에 가서 독립군들을 데리고 이만으로 올테다. (250-251쪽)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피신했던 봉설을 찾아온 철혈광복단 동지 길룡으로부터 국정이를 비롯한 사건에 가담했던 동지들이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무장할 희망을 놓친 것을 분하게 여긴다. 길룡은 러시아 빨찌산들과 손을 잡고 일본군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궁금해 하는 봉설에게 빨찌산은 해삼에 온 일본군대를 박멸하고 원동을 해방시키는 신당파로, 대한 독립을 위한 그들의 철혈광복단의 항일투쟁과 상통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 딴 흥수가 있다! 인제 로씨야 빠르찌산들과 어깨를 맞걸구 로씨야에 온 일본 군대부터 박멸해야 된다. 다음에는 간도로, 조선으로... 홍범도 선생이궁 옹게 생각 했다.

봉설: 로씨야 빠르찌산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 하고 흥미를 두었다.

- 로씨야 빠르찌산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여기에 온 일본 군대를 박멸하고 원동을 해방시키자는 사람들이다.

- 응 - 하고 봉설이는 무엇을 회상하며 말하다 - 그때 국정이가 이야기하던 그

---

<sup>5</sup> 인쇄가 되지 않는 글자.

로씨야 신당파들이구나 그파들이 그렇게 한다거구나.

응세: 옳다. 바로 그 파들이다.

봉설: 그 빠르찌산들이 어디 있다더냐?

길룡이는 어디 있다는 것을 말했다.

봉설: 그 빠르찌산들이 우리를... 로씨야 사람이 아닌 우리를 저 께에 넣을가?

길룡: 거기에는 벌써 조선 사람, 중국 사람들이 슛해 들어 있단다.

- 정말? - 하고 봉설이는 비상히 기쁜 음성으로 - 어디서나 일본놈들과 전쟁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니까.

응세: 일본놈들과 전쟁하는 것두 우리들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로씨야 빠르찌산들과 손을 맞잡아야 대한 독립을 할 힘이 있다. 꼭 있다. 글 로씨야 무기....

- 그런데 우리는 로씨야 말을 몰라서... 국정이가 있었더면 얼마나 좋겠냐 - 하고 봉설이는 애석해하며 한숨을 쉰다.

몸이 아직 완쾌되지 않은 봉설을 길룡과 응세가 리해인의 도움을 받아 기차편으로 수청으로 데려간다. 수청의 립이완의 집에 머물다가 몸이 완쾌되면 이만으로 데려갈 계획이다. 립이완은 봉설에게 총 몇 자루 가지고 항일투쟁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며 독립을 위하여 러시아 빨찌산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 흥범도와 상의한 바가 있음을 말한다.

- 그-으렇게 해 가지구서는... 대한 독립을 못 합너니 - 하고 립 이완이는 제 집방에서 봉설이더러 말하였다 - 그까짓 일본 은행 돈을 몇 푼 털어 가지구 총 몇 자루 사서는 안 되오... 일본놈들을 대한 땅에서 못 몰아 내오... 지금 일본에는 대한에 없는 별별 무기가 다 있지... 대한 독립군들이 인젠 로씨야 빠르찌산들과 합해 가지고 로령에 기여든 일본 군대부텨 죽쳐 버리고 로씨야 빠르찌산 군대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 가야 일본놈들을 똥똥은 강아지 팽개치듯 대한 땅에서 집어 팽개칠 수 있고!... 그렇길래 인젠 다왈씨 봉설이네두 일본 은행 돈을 가지구 독립을 하려니는 더 궁리도 하지 말구 이만에 대한 독립군들이 있는 데 가서... 거기 대한 독립군들이 많이 모여 드오. 거시 가서 독립군들을 선전해 로씨야 빠르찌산 군대와 합해야 하오... 그래야 우리가 대한 독립을 속히 하게 될 게오. 흥 범도와두 우리 이런 말이 있었소. (307쪽)

수청탄광 야장 립이완은 결국 봉설에게 공산당원이 될 것을 제안하나 봉설은 독립이 첫째라며 독립을 한 다음에 공산당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자 이완은 사회주의를 역설하며 독립군과 빨찌산의 역할을 설명하며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이들의 연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봉설도 결국 이를 받아 들이며 이완을 만난 것을 행복스럽게 생각하며 하루 속히 러시아어를 배울 것을 결심한다.

- 그래, 나두 첫째로 독립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소. 독립을 하고서는 어떤 제도를 세우겠는가? 이전처럼 임금이 있는 제도를 세우겠는가?... 그렇게 되면 봉설 이네게나 우리에게 발 한 고랑 차례 아니 지오! 그러면 독립을 하구서두 어떻게 살겠는가?... 꿈이라구 제 발바닥을 핥구 살겠는가?... 그런 독립은 하나 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독립을 해야 하오. 꿈꿈 생각해 보오. 내 말이 그르지 않습년이. (309쪽)

로씨야 말에는 독립군이란 말이 있는 것 같잖아오... 야 꺼레채 빠르찌산 - 하면 내 대한 독립군이란 말이 되오. 어째서 빠르찌산이란 말이 독립군이란 말이 확실한가 하니 지금 일본놈들이 대한처럼 로씨야를 먹자구 여기로 오니 우리 탄광 로씨야 노동자들이 빠르찌산으로 슯해 갔소. 그걸 본즉 빠르찌산이란 사람이 확실히 대한 독립군들과 같은 사람들이오. 그러길래 우리가 로씨야 빠르찌산들과 합해야 하오. 나두 빠르찌산으로 가자구 다 준비를 했다가 다른... - 하고서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 권총까지 갖춰 낚다가... (312쪽)

숙경으로부터 국정을 포함한 3명의 동무가 서울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봉설이 이완에게 이 소식을 알린다. 이완은 동무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하루 바빠 이만으로 가서 독립군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 러시아 빨찌산 군대에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 서울에 간 우리 다왈씨들이 사형을 받아 죽었답니다 - 봉설이가 침울하게 말했다.

- 사형을?... - 하고 놀라는 이완이는 부지중 구들에 털썩 주저 앉았다 - (.....) 사형을 왜놈들이 한게 아니오. 조선놈들이 했소. 엄 인섭이란 놈은 더 말 할 것도 없거니와 한 창민, 백 성필, 방 기창 같은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한 셈이오. 대구리 없는 자식들이 그래두 대한 독립을 하겠다구 흥 범도는 몰리우고 - 하며 벌컥 일어나서 정주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 내 또 말하오. 다왈씨들은 어서 이만에 가서 독립군들과 같이 로씨야 빠르찌산 군대에 하루 바빠 들어 서우. 그래야 죽은 다왈씨들의 원수를 갚을 게오. 지금 이만은 빠르찌산들이 차지했소. 거기에 가서 조선 사람들이 제 군대를 맨들어 가지구 아라사 빠르찌산들과 합하게 하오... (315쪽)

1920년 9월 이만시 고려인 소학교에서 홍범도의 주재로 조선독립군회의가 열렸고 봉설이 ‘다왈씨!’로 말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로씨야에서 전쟁하는 것이 곧 대한 독립 전쟁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왜놈들은 대한에 있는 왜놈들이나 로씨야에 온 왜놈들이나 다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땅에 기여 들었던지, 어디서던지 우리는 그 놈들을 죽쳐 잡아야 합니다....” (321쪽) 라고 러시아에서 항일

투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언급하자, 로씨야 공산단원인 박홍도 노동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이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 (.....) 나도 대한 독립 사상을 품고 일찍 로씨야로 왔습니다. 오늘도 나는 대한 독립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나는 로동 로씨야를 일궈세운 레닌의 뒤를 따라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레닌이란 말을 대한 민족과 같은 그런 세계 피압박 민족들이 다시 살아 나는 시대란 말입니다! 때문에 로동 로씨야는 대한 독립의 표대입니다. 세상에 처음 생긴 로동 국가란 말은 예속된 민족들과 식민지 민족들의 자주 독립의 조국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총 한 자루 제 손으로 만들 재간이 없는 대한 민족 같은 민족이 로동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을 할 수 없습니다! (323쪽)

독립군 사관학교를 세우기로 한, 러시아로 귀화한 고려인, 즉 원호인이 거주하는 마을인 양허재에서 주민회의가 열리고 독립군 사관생들을 집집에 배치하는 문제가 토의되었다. 아래 인용하는 덕화의 말을 통해서, 지주계급과 소작인 간의 차이가 없어진 고려인 사회에 도래한 사회주의 사상이 민중에게까지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덕화는 제 자리에 털석 주저 앉아서 곰방 대통을 책상에 툭툭 떨어뜨렸다. 오늘 그는 이전에 쳐다 보이던 원호지인들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이 학교도 제 학교 같은 마음이 북바쳤다. “대한 독립이 되문 나두 사람 축에 들 게다” - 이렇게 믿음 있게 말했다. (325쪽)

홍범도는 조선과 중령에서 조선 독립 군대 군인 수 천 명이 이만 등지에 모였다는 것을 레닌에게 알리고 모이게 된 목적을 말하며 그러한 목적이 옳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레닌한테서 직접 들어 보자고 찾아 왔음을 밝힌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유독 고려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식민지 민족과 예속 민족들이 해방되고 조국이 독립되리라는 믿는다는 레닌의 말을 들은 홍범도는 장엄한 표정으로 “대한 독립의 힘이 어디 있는 걸 인젠 내 더 똑똑히 봅시다.”(346) 라고 답변하자 레닌은 홍범도에게 선물을 건넨다.

이윽고 나이 듬직한 로씨야 사람이 적지 않게 큰 들가방을 가지고 들어 와서 레닌의 앞에 놓고 헤치였다: 시벨리, 뽀족 모자, 군인 장화, 혁대, 그리고 권총이 나타났다. (346쪽)

레닌이 직접 홍범도에게 권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물을 했다는 사실은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에서 강제이주라는 비인간적 처사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고 시련을 겪었던 고려인에게는 명예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봉설은 독립군 ‘다왈씨’들과 함께 원동공화국 인민군 부대와 빨찌산들과 함께 이만 방어선에 나가면서도 “우리가 로씨야에서 일본 군대와 백과와 싸우는 것이 곧 대한 독립 전쟁이오. 다음에 로씨야 군대가 우리와 같이 나서야 우리가 일본놈들을 조선에서 몰아 내오”. (354쪽) 라던 공산당원이며 독립군인 박홍이가 늘 하던 말을 기억한다.

### 3. 마무리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강제이주로 말미암아 정착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다. 믿을 수 없는 민족으로 치부되어 소외된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스탈린 사후에 공민증이 발급되고 원동에서 항일투쟁이나 소비에트 주권 설립을 위해 활동하던 민족 영웅들의 문학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십오만 원 사건>>에 나타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강제이주에 따른 당시의 암울한 시대적 상황하에서 고려인 사회에 기여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에 대항하는 주인공들의 활동을 통하여 표출된 민족주의는 당시 강제 이주로 말미암아 소외감을 느끼던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독립만세 시위 같은 소극적인 항일사상에 바탕을 둔 집단적 민족주의는 민중성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적극적인 무장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도래한 사회주의 사상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주창하는 민족 영웅들의 활동상을 통해 강제이주 후 이주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경험했던 민족적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상처 받은 고려인들의 자존심 치유와 고려인들의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부당한 처사로 인해 훼손된 고려인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복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 참고문헌

- 김준(1964), <<십오만 원 사건>>, 알마-아따: 카사흐국영문학예술출판사.  
김준(1977), <<그대와 말하노라>>, 알마-아따: 사수식출판사.  
김준(1985), <<숨>>, 알마아따: 사수식출판사.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용인: 강남대학교출판부.  
장사선, 우정권(2005),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이명재 외(2004),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서울: 한국문화사.